



허정림 | 환경공학박사 /  
(사)한국환경교육학회 총무이사  
(jr529@naver.com)

## 하천이야기 신화 속을 흐르는 물

### 창조 신화 속의 물

물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다. 그런 까닭에 고대 문명에서는 물이 생명의 근원으로, 종자가 되는 액체로, 지구 자궁의 즙으로 신성시되었다고 한다. 자연히 고대의 모든 창조신화들은 물을 그러한 의미로 묘사하고 있다. 원시인들은 창조의 행위를 위대한 신들이 추는 춤으로 여기고 카타르시스 작용으로 간주하였다고 한다. 그것 역시 그들은 바로 물을 자연의 요소로, 계절의 변화와 같은 자연의 순환과 모든 존재의 생명을 주재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호존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물은 대지나 불이나 공기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투명하고 아무 맛도 안 나는 물은 참으로 여러 개의 모습으로 유지되는 특이한 물질이다. 액체이지만 기온이 낮으면 얼음의 형태로 고체가 되고 끓이거나 온도가 높을 때는 기체로 날아가 버리는 3가지 형태의 모습을 지닌 팔색조 같은 이상한 물질이다. 지구상의 어떤 물질이 이와 같이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인간생활에 유익한 물질로 존재하던가! 그래서인지 물은 모든 피조물과 산, 구름 등 세상만물의 근원을 비추는 우주의 거울이라고 하나보다. 이러한 세상의 거울이라는 물의 이미지는 세상 거의 모든 종교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불경 열반경에는 감로수(甘露水)로 표현하고 있고, 성당에서 '성수'는 예수님의 '성체'와 더불어 신성수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물이다. 물은 불과 대립하는 힘을 상징하기도 한다. 예전의 할머니들은 무엇이든 치성을 올릴 때면 어김없이 정한수를 떠 놓고 기도를 드렸다. 물은 바로 신과 인간을 접속하는 매개체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물이 없는 종교적 행위의 예식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새로이 주장한 신흥종교(?)도 바로 물에서 기인한다. 혹시 들어보았을지 모르지만 '신흥종교 라면교'는 <끓는 물에 죽고 3분 후에 부활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부활의 신앙인 기독교를 패러디한 이 문구는 라면과 물의 특징을



한마디로 명쾌히 정의했다. 바로 라면을 빗대어 나온 유머이지만 물과 종교를 엮는 자연스런 인식에서 오는 사회현상의 에피소드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억지스러울까?

###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물의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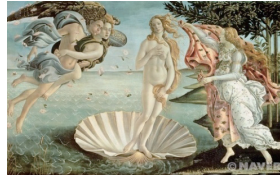
고전시대의 신화는 그 이전의 구전이야기들까지 다 망라하

여 보여주는 정교한 종교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물은 다양한 의미체계와 연관 지어 바라보는 경향을 보였다. 창조와 파괴, 탄생과 죽음, 미명과 성적 욕망, 정열과 권력 등 다른 어떤 문화의 정신체계보다도 더 농후했다. 더불어 물은 늘 신비스러운 속성을 상징하였다. 신화에 등장하는 선택된 신들은 자연의 힘을 상징하고 조절하는 신이었는데 대부분 항상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 신들 사이의 갈등, 사랑과 질투 등 인간사에서 보여지는 모습들로 묘사되었다. 결국 물은 고전 시대의 우주론의 근간을 보여주었다고 해석된다.

예를 들어 우라노스(하늘)와 가이아(대지)의 아들인 오케아노스는 고대 지리학에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고 믿었던 거대한 강을 상징하는 신이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장으로 생각한 고대의 현인들은 그 강을 아직 형성되지 않은 텅 빈 그 공간에 바다가 생겨난 것으로 생각했다. 강의 신인 오케아노스는 인간의 정신에 망망대해의 그 엄청난 깊이와 광활함(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줄 거대한 자연에 대한 경함)이 어떤 것인지 심어준 샘이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로마신화에서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은 넵투누스이다. 그는 원래 상서로운 샘물의 신이었다. 그러다 점차 폭풍을 몰아치는 힘을 지닌 무서운 바다의 신으로 변해갔다. 모습만으로도 바다에 폭풍을 잠재울 수도 있었던 그의 위력이 느껴진다. 수영이 달린 험상궂은 표정에 삼지창을 들고 다니는 전사의 모습을 한 넵투누스! 그는 청동 말굽에 황금 갈기가 휘날리는 말들이 끄는 마차를 바다 위로 몰았으며 그가 다니는 길목 주변에선 해저의 동물들이 뛰어 놀곤 했었다. 넵투누스는 모든 바다의 신이었으며 동시에 밀물과 썰물을 조정하는 신이었다.

그 밖에도 신화 속 물의 신은 네레우스의 딸들인 네레이스인 바다의 요정들과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내인 암피트리테, 그리고 제우스의 아내로 훗날 그들의 아들인 그리스 영웅 아킬레스를 낳는 테티스가 있다. 또한 갈라데이아는 바다의 외눈박이 괴물 키클로프스가 그녀의 애인 아키스를 질투하여 죽게 만든 바위틈으로 나온 맑은 물이 신선한 강으로 변했다고 한다.



아무리 그리스로마 신화를 몰라도 누구나 아는 보티첼리의 걸작인 '비너스의 탄생'과 같은 그림에서 나신으로 나온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어머니인 아프로디테는 물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이다. 물거품에서 태어나 이토록 아름다다면 물거품이 되더라도 여자라면 한번쯤 동경하고 싶어진다.

신화 속의 성스러운 물을 보면 원시사회부터 물은 신비스러운 것으로 생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은 마치 마술을 부리는 듯, 땅에 흐르다가도 맑게 솟아오른다. 또한 투명하면서 끊어지는 듯 하다가도 이어질 수도 있는 물은 신비롭고 충분히 사람들의 매력을 끌 수 있었다. 특히 기독교가 보급되기 이전의 이교도적 문화 속에서 샘이나 개울과 강은 모두 신비스런 대상으로 여겼다. 게다가 물의 신비로움은 극에 달하여 굶기야 사람들은 종종 물 자체에 정령이 있다고 믿기도 하였다. 역시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물 숭배나 샘 치장과 같은 관습이 여전히 전해 내려오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호신이나 샘의 정령에게 기우제를 올리는 등, 기후로부터 인간세상을 돌봐 달라고 빌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이 마치 종교와 같아서 소원을 들어주는 절대적인 존재처럼 추앙되어 병의 치료 나아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기도하였다. 지금처럼 예전에도 광장의 분수나 연못 속의 동상에게 조차 동전이나 핀과 같은 헌물을 바쳤나보다. 아직도 수많은 샘에서 지금도 소원을 담은 헌물이 발견되기도 한다.

유럽여행객이면 누구나 들린다는 로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수인 트레비 분수(Fontana di Trevii)! 이 분수에서 뒤로 돌아서서 동전을 던지면 언젠가는 로마에 다시 올 수 있다는 속설도 있다고 하여 수많은 관광객의 주머니를 가볍게 한다. 로마사람들의 상술에 물이 이용되었을, 뻔한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을 만큼 트레비 분수는 매력적인 걸까?

1453년 교황 니콜라우스 5세의 명으로 만들어진 분수가 전신인 트레비 분수는 1762년에 교황 클레멘스 13세의 의뢰로 니콜라 살비가 설계를 담당해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한

다. 폴리 궁전의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 분수에는 반인반어인 바다의 신 트리톤, 대양의 신 오케아노스 등이 조각되어 있고 분수 가운데에는 바다의 신 넵투누스의 조각상이 있다. 물과 관계된 모든 그리스신화 속 신들이 이 분수에 모두 있으니 소원을 들어 줄 법도 하다.



로마에 가지 않아도 서울시내에서도 소원을 빌 수 있다. 청계광장 폭포 팔석담이다. 2005년도에 서울시 직원의 아이디어로 생겼다는 "동전 던지는 곳 눈에 잘 띄게" 만든

이 곳 청계광장 폭포 팔석담에서 최근 1년간 모인 3,839만원은 기부하고 외국동전 31,463개는 유니세프에 전달했다고 한다. 무려 '05년부터 60만 명이 동전 120만개 던졌다고 하는데 금액 8천만 원보다 놀라운 것은 동전 날개로는 120만 여개여서 1인당 2개를 던졌다면 60만 명이 다녀간 셈이고 일렬로 세우면 63빌딩 10개보다 더 높다는 사실이다.

사실 동전의 숫자나 금액보다 의미로운 것은 바로 사람들의 갖가지 소원을 물을 통해 빌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곳의 "청계천서 소망 빌고 동전 던진 후 실제 행운이 왔어요!" 체험사연도 갖가지라고 한다. 청계천 동전 던지기에 참여한 시민 대부분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가장 바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해 2월 시민 26명에 대한 간이 인터뷰 결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다"는 응답이 53.8%(14명)로 절반을 넘고 "진학과 취업", "세계평화" 등 소망이 각각 11.5%(3명)였다.



청계천을 찾은 시민과 외국 관광객들이 자신의 소망을 빌며 던진 '행운의 동전'은 희망의 동전이기도 하다. 가난한 사람의 한 끼 식사가 되고 접었던 꿈을 펼치는 한 아이의 학비가 될 것이니까 말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소망을 모아 행운의 동전을 던지면 팔석담에 잠자고 있던 물의 요정이 이웃사랑의 기적을 이루어줄 것이라는 믿음의 진위여부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 실제 현실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눔의 기부현장이 되어 희망을 노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명무실해진 '행운의 동전'을 로마 '트레비 분수'처럼 '서울의 명소로 변신시킨 것은 2010년 이후 동전 던지는 곳 바다에 표지판을 붙이고 불우이웃돕기에 쓰인다는 홍보문을 외국어로 병기하는가 하면 동전 투입구에 화강석 조형물을 설치하고 밤엔 LED 조명도 밝혔다. 물을 통한 마케팅인 셈이다. 이러한 마케팅은 효과 만점이었다. "청계천에서 연인, 친구, 부부끼리 작은 소원을 빌고 동전을 던지면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재미삼아 하나 둘씩 동전을 던지는 시민들이 점점 늘었다. 외국관광객들도 유니세프를 통해 개발도상국 어린이를 돕는데 쓰인다는 설명은 설득력을 가져 앞 다 튀 주머니를 열게 했다. 청계천은 이웃을 도우면서 동시에 서울을 알리는 명소가 될 수 있었다.

## 각 나라별 물의 신화

그 밖에도 각 나라별 물의 신화를 보면 매우 흥미롭다. 일본의 신화에는 해저 깊은 곳에서 잠을 자다 깨어나는 거대한 잉어의 이야기가 있다. 그 잉어가 격렬히 몸을 비틀며 물장구를 치는 바람에 엄청난 파도가 일고, 그 속에서 오늘날의 일본 열도가 솟아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얼마나 대단히 크고 성깔 있는 잉어였을까 싶어진다. 아마도 잉어의 성정이 휴화산으로 숨어 있다가 시한폭탄을 터트려 신화처럼 격렬해질지도 모를 일본열도를 예견이라도 하는 걸까? 잠시 우리나라 지도를 호랑이로 상징하기도 하는데 일본지도 바로 밑, 바다에 웅크리고 있는, 언젠가는 신화처럼 몸을 꿈틀댈 듯 음흉한 툭튀어난 눈을 가진 잉어가 잠자고 있는 상상을 해보니 개봉박두

영화처럼 흥미진진해진다.



인도에서는 힌두교의 창조신인 브라마, 파괴의 신인 시바와 함께 3대신의 하나인 유지신(維持神)인 비시누라는 신이 우주 바다 위를 떠도는 우주의 뱀을 타고 다니며 이 땅을 생겨나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북미 대륙에서도 옹골을 떨친 인디언 족인 아파치 족, 피마족, 블랙풋족이 살았던 평원

도 먼 옛날엔 잔잔한 바다였다고 한다. 그러다 뗏목을 타고 유랑하던 올드맨(세상의 우두머리)이 나타나 그 바다 속에서 땅이 나타나도록 했다는 것이다. 북미 인디언 종족은 창조주가 어느 동물을 해저로 보내 그 속에서 진흙을 건져 올리게 한 다음, 그 진흙으로 그들이 사는 땅덩어리를 만들었다는 신화를 갖고 있다. 그들은 또한 원시의 바다에서 대지를 건져 올렸다는 대지 잠수부들의 신화도 가지고 있다. 인디언들은 다양하고 이색적인 이름처럼 다양한 물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인디언들은 바다 건너편, 그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종족들 역시 창조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그 비슷한 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 외에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한 수메르인과 아타드(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한 도시, 기원전 2400년경 셈 족의 사르곤 1세가 왕조를 세운 곳)인 물의 신화가 있다. 수메르인과 아타드인이 숭배하던 제신의 아버지 압수Apsu는 원초적 혼돈, 즉 대지 밑을 흐르는 부드러운 바다였다. 그러다 여신 티아마트(바빌로니아 신화에 나오는 여신, 압수의 아내이자, 신들의 어머니임. 마르둑에게 피살되어 그 육신에서 천지가 만들어졌다고 함)와 결합하여 이 세상을 탄생케 한 것이라고 믿는다. 결국 물로부터 지구만물이 파생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 인류문명을 발전시켜 온 원동력, 물과 문명

물로부터 파생되어 온 신화 속의 이야기만으로도 물이 얼마

나 지구와 인간의 근간을 이루는지 알 수 있다. 물은 곧 신앙으로 여겨진 고대부터 물이 없는 문명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바다, 강, 호수 그리고 그 밖의 물이 고여 있는 모든 장소는 고대인들에게 살 곳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듯 소중한 삶의 원천인 물에 대한 경외심은 나아가 생존을 위한 물의 이용으로부터 사람이 모이고 도시가 생기고 문명이 일어났다. 이에 인류는 물을 유용하고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를 만들었고, 홍수를 막기 위해 물레방아와 수로와 관개시설과 저수지를 만들었다. 또 다리를 놓을 수 없는 넓은 강과 바다가 주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배를 만들고 항해기술을 발전시켰다.

인류의 고대 문명은 언제나 강과 그 주변의 형성된 평원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문명에게 강은 오늘날까지 젖줄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중국 문명은 양쯔강과 황하에서 형성되었으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인더스강과 나일강에서는 파키스탄의 문명지로 일어났다. 이렇듯 강을 통해 인간은 공존하며 문명을 일으키고 생존하면서 도시를 형성했다. 곧 강과 문명의 관계와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사회의 구성과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전적으로 물에 의존하며 살아왔고 물의 지배 하에 살아왔다. 따라서 한 사회가 얼마나 번영하고 풍족함을 누리려는가는 전적으로 그들이 수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그렇지만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 물을 이용하는 것이 이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때로는 정치적 이유로 경제적 상황으로 난개발도 서슴치 않는 파렴치한들로 인해서 물은 상서롭고 이로운 인간을 돕는 물이 아니다. 이미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물이용으로 우리 사회는 고질적 문제를 품은 시한폭탄을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던져 버렸다.

### 물과 개발의 문제

자연환경의 구조를 무시하고 주택 또는 공업단지를 조성하

는 일 또한 재해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바다가 내려 보이는 모래 언덕에 주택지를 조성하는 일이 빈번한데 이는 자연 상태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조화롭게 평형이 유지되었을 때 해안의 침식과 재생 사이클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간척지에 만든 농장도 강과 바다의 조수간만 작용을 방해한다. 바다를 막고 해안을 이용하여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안선의 생태를 보존하는 게 더 인간을 이롭게 하는 가치로운 일이란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위적으로 댐과 제방, 수로를 건설하여 자연스러운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바꾸는 일도 자연의 재해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동물, 식물, 곤충들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부작용까지 가져온다. 거대한 댐의 건설은 인간집단이 이루어 놓은 삶의 터전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경우도 있다.

강한 폭풍이 몰아쳐 댐이나 제방과 같이 인간이 만든 기구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면 필연적으로 큰 홍수 피해가 따른다. 수리학자들은 홍수를 자연적으로 조절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강물의 흐름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농장과 주거지를 또는 상가를 좀 더 높은 곳으로 옮겨 지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미 외국은 자연을 개발하여 자연재해를 극복하던 옛 방식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자연보존을 통한 생존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인재에 의한 자연재해 사례를 보면, 도시를 확장하고 가축의 먹이와 종이의 원료인 펄프를 공급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열대우림을 파괴한 제립작업이 원인이었던 베네수엘라 대홍수(1999)이다. 열대의 숲의 나무와 식물들의 뿌리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만드는 그물망은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고 토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숲을 없애면 빈 땅은 이러한 조절 능력을 상실하며 결국 큰 홍수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파괴가 잇따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대의 크기를 자랑한 양쯔강 대형댐은 양쯔강을 따라 건설되는 3개의 커다란 골짜기의 댐건설로 최소 7만 명의 주민이 이주해야 했었고 수천 개의 사찰과 신전이 수몰

되었다. 콜로라도 강 글렌케니언 댐(1963) 역시 이 댐이 완성되면서 형성된 저수지인 파월호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인공호수이다. 또한 주변의 사막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유원지이다. 그러나 1983년 이 저수지가 거의 넘칠 정도로 수위가 올라갔을 때, 사암으로 만들어진 배수구에 금이 갔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만일 이 댐이 무너진다면 강의 하류에 있는 여섯 개의 댐 중 적어도 하나가 더 파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결국 인간이 물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오히려 인간의 생활과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언제나 개발의 논리를 앞세워 기본적인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개발의 문제는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처럼 인간생활에서도 물의 흐름과 소통의 환경적 요소를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개발해야 한다. 이제 어느 것도 치우침이 없이 인간뿐 아닌 모든 생명체가 공존하는 지구인 삶의 터전을 보호하는 일에 모두 합심하여야 한다.

## 물과 철학 : 물을 대하는 태도

과거 수십 년 동안 걸친 무절제한 벌목과 가축 방목에 의한 초지의 파괴, 잘못 설계된 관개시설과 시냇물의 고갈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막화되는 지역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물은 인류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사람들은 마시고 씻기 위하여 또 집을 청소하고 의복을 세탁하는 일은 물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불을 끄고, 여러 종교에서 정화의식이나 세정식을 거행하는데도 물을 필요로 하며, 병을 치료하고 농작물에 관개수를 대며 나아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구도의 과정에서 물을 사용한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해 오는 과정에서 물은 농경과 건축, 물자의 수송 및 산업의 발전을 가능케 한 중추적인 요소였다. 또한 물은 우주의 모든 행성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적, 감성적, 영적인 행복의 중심에 놓여 있기도 하다.


지구상의 물을 보호하고 또 보존하는 것을 의무나 과제로

생각하여 수동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 주변에 아직은 풍부 한 물에 대한 소중함은 간과한 채, 남들이 아끼면 되는 식의 안 일한 태도는 바꾸어야 한다. 각자가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 물 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이를 감사히 여기는 마음 으로부터 우리나라는 능동적인 태도로 대처해야 한다.

이제 물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자 한다. 유명한 인도의 사상가인 크리슈나무르티에 따르면 명상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을 잡념 없이 집중 적으로 인식하는 작업이라고 했다. 우리도 소소한 일상에서 물을 대함에 있어 하루 중 아침에 샤워를 할 때, 한 잔의 차를 마실 때, 수세식 변기의 물을 내릴 때, 또는 세탁기를 돌릴 때 마다 물의 고마움을 새롭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또 이처럼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순간 이외에도 숲을 가르는 시원한 폭포수를 감상하거나 노을 진 강가에 앉아 고요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볼 때, 바닷가에 밀려오는 파도 거품 속 에 일렁이는 파도소리를 들을 때, 또는 내리는 빗소리를 음

악 삼아 커피 한잔의 여유를 만끽할 때도 물의 존재를 생각 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자신의 내부에 물에 대한 인식이 새겨져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그 중요성을 느끼 게 될 것이다.

사람의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완성된 몸을 구성 하듯 각 개인이 이러한 사고와 태도로 물을 대한다면 우리사회에 서 하나하나의 세포가 연결되어 하나가 되듯, 이렇게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작은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변화가 궁극 적으로 지구상의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 듯 나 한 사람부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물을 아끼고 사랑 하고 즐기고 나누는 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며 이는 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시작이 될 것이다. 

**출처**

경향신문 .2010/1.10  
<물의 역사>, 알레브 라이틀 크루티어(1992) 예문  
<물의 신화>, 다니엘 알트먼(2002) 해바라기